

전남도 “글로벌 에너지 수도 도약” 제도 정비 전력

해상풍력·태양광·분산에너지 재생에너지 4법 제·개정 집중 제도적 기반 마련… 기업 유치 “국회·정부에 직접 건의 나서”

전남도가 글로벌기업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해상풍력 특별법’ 등 재생에너지 대표 4법 제·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지사는 최근 간부회의에서 재생에너지 4법 제·개정을 통한 전남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강조하며, 특단의 노력을 주문했다.

4법은 해상풍력 특별법,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분산에너지법 등이다.

김 지사는 “재생에너지 대표 4법 제·개정을 통해 전남이 분산, 재생에너지100(RE100)의 글로벌 중심지로 자리매김토록 법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4대 법률의 제·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와 정부에 직접 건의하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기존 해상풍력 기업의 사업권을 보호하고, 지자체의 예비지

구 신청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해상풍력 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은 농업, 재생 에너지를 융합한 영농형 태양광사업 확장을 목표로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사업주체를 법인까지 확대하고, 사업 영역을 농업진흥구역까지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지자체 주도 집적화 단지 모델을 제도화해 난개발을 막고,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할 방침이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국가적 문제로 떠오른 전력계통 포화 문제 해결

을 위한 것으로 전력계통 입지선정 단계부터 정부와 한전이 전남과 같은 전력계통 포화지역,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지역을 우선 고려해 줄 것을 법안에 담는다. 특히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 고속도로 건설비의 절반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처럼 에너지 고속도로(송배전시설) 또한 재정이 어려운 한전에 일방적으로 부담시킬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재정 지원에 나서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지난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법의 경우 차등요금제 기준 구체화, PPA망 이용료 면제 등 인센티브제를 반영, 데이터센터

등 전력 소모가 큰 기업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전남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도는 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대응키 위해 지난달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5개 실·국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100·분산에너지 활성화 TF를 구성했다.

김 지사는 “미래산업의 중심은 재생에너지고, 에너지 대전환, 재생에너지100에 잘 대응하는 것이 전남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4대 법률 제·개정을 통해 전남이 글로벌 재생에너지 수도로 힘껏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jinyun.oh@jnilbo.com

전남도, 제5기 호남청년아카데미 개강

24일까지 특별감시반 운영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청년이 도전하고 활약해 새로운 미래 주인공이 되도록 힘껏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난 7일 장흥 통합의학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기 호남 청년 아카데미’ 개강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고 8일 밝혔다.

전남도는 민선8기 도지사 역점시책으로 대한민국과 전남 100년을 책임질 청년 핵심리더 육성을 목표로 ‘호남 청년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다.

‘호남 청년 아카데미’는 지난해 2월 출범식을 시작으로 제1기부터 47기까지 총 39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수료생들이 ‘전남 청년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2기 아카데미 개강식을 진행했다.

이번 제5기 호남 청년 아카데미는 ‘에너지전환 호남의 선택’을 주제로 11월 9일까지 5회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5기 과정을 이수한 수료생 전원은 ‘전남도 청년 서포터즈’로 위촉돼 전남도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등 전남을 널리 알리는 홍보활동을 펼치게 된다.

최동한 기자

전남도, 추석연휴 체험관광상품 50% 할인

해상케이블카·요트 등 이용

전남도가 추석 연휴가 포함된 9월을 맞아 귀성객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역 인기 체험상품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1+1 블루투어 시즌2’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전남의 주요 관광지에서 운영하는 해상케이블카, 요트체험,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체험상품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시즌2에서는 목포의 해상케이블카, 뉴문마리나 요트체험, 여수의 녹테마레와 플로팅마리나, 담양의 딜라이트 미디어아트와 같은 인기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관광플랫폼(JN TOUR)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남도는 이와 함께 시즌2 외에도 결제

금액에 따라 숙박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전남 외 주소지를 둔 관광객으로, 전남지역 숙박업소 이용 시 결제금액 10만 원 이상은 4만 원, 7만 원 이상은 3만 원, 7만원 미만은 2만 원의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전남 사랑에(愛) 서포터즈 인증 시 1만 원 추가 할인된다. 모든 혜택은 전남관광 플랫폼 앱에서 제공하며 전남의 관광산업을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우정 전남도 관광과장은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이 전남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더욱 가까이에서 느끼도록 시즌2를 준비했다”며 “시즌1에 이어 시즌2도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능한 한 많은 분이 숙박과 체험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

광주시, 15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남광주 등 4개 전통시장서

광주시는 추석을 맞아 해양수산부 주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4개 전통시장에서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행사에 참여하는 시장은 남광주·남광주해뜨는시장, 양동전통시장,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월곡시장 등 4곳이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기간에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당일 구매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1인 최대 2만원)해준다.

구매금액 3만4000원 이상 1만원을 환급해주고,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을

돌려받는다. 환급대상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과 국내산 수산물 원재료 비중이 70% 이상인 가공품이다.

남광주·남광주해뜨는시장 환급소 운영시간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다. 양동·서부농수산물도매·월곡시장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운영된다.

나병우 경제정책과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국산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침체된 시장과 지역경제가 되살아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자원순환의 날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이 지난 7일 서구 상무시민공원에서 제16회 자원순환의 날을 기념해 ‘착한도시 서구랑 RE:100’ 행사를 갖고 병뚜껑을 활용한 오브제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광주 서구 제공

광주시, 내년 시민참여예산 온라인투표

13일까지 ‘시민광장 광주온’

광주시는 9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온라인 시민소통 플랫폼 ‘시민광장 광주온’을 통해 ‘2025년도 시민참여예산 사업 선정’을 위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투표 참여자는 2025년도 예산편성 적정성 평가(상·중상·중·중하·하)와 2023년도 추진 완료한 시민참여예산 사업 17건 중 2건을 우수사업으로 선정하면 된다.

광주시민이라면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광주시는 지난 4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시민들로부터 2025년도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통해 총 292건의 사업을 접수받았다. 이후 사업부서 검토와 참여

예산위원회 숙의·심사 과정을 거쳐 총 62건(시정참여형 17건, 청년참여형 1건, 지역참여형 41건, 동단위계획형 3건)의 제안사업을 투표 대상으로 상정했다.

유형별 투표 대상 사업(62건)으로는 △찾아가는 영유아 통합발달 플래너, 다회용기(텀블러 등) 이용 지원금 지원, 반려견 목줄 거치대 설치, 5·18 샌드아트 콘텐츠 제작 등 시정참여형 17개 △청년 이사회 지원 등 청년참여형 1개 △푸른길공원 화단 정비, 물빛근린공원 저수지 수질 개선, 신가 먹자골목 장미꽃 터널 조성 등 지역참여형 41개 △분토마를 금단동 입구 석축 보강공사 등 동단위계획형 3개 사업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복지시설 이동식 경사로 설치 △자전거 전용도로 공기 주입

기 설치 △광주에너지파크 그늘막 설치 △청년AI 모의면접 프로그램 확대 등 2023년도 추진완료한 17개 사업 가운데 우수사업도 선정한다.

최종 사업 선정은 온라인 투표 결과와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의회 예산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되며, 12월 중순께 참여예산 누리집을 통해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배일권 기획조정실장은 “광주시는 시민 참여예산 투표를 통해 예산 편성 등 예산의 전 과정에 시민 참여를 적극 보장하고 있으며, 투표결과는 예산편성 우선순위 결정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며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전남산 유기농 가루녹차, 외국시장서 인기

유럽 이어 호주 6톤 수출 성과

전남산 유기농 가루녹차가 외국시장에서 인기를 끌면서 독일, 아일랜드 등 유럽에 이어 호주까지 수출 선적이 잇따르고 있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지난 6월 보성 보림제다에서 차 수출 관계자와 생산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공 전문업체인 월드티㈜농업회사법인을 통해 전남산 가루녹차 6톤을 호주에 수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호주 수출은 지난 6월 시범으로 1톤을 수출한 데 이어, 품질을 인정받아 현지 바이어의 추가 요청으로 이뤄졌다.

전남도 농업기술원 차산업연구소는 전남 차 수출 확대를 위해 가루녹차의 품질 평가와 제다 장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제다장비를 지원하는 차 가공지원동은 지난해 유기농공식품 인증을 획득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유럽연합 유기농공식품 상호 동등성 인정 협정에 따라 유기농 표시해 수출하고 있으며, 올해 4.2톤의 유

기농 가루녹차를 독일, 아일랜드 등으로 수출했다.

이번 성과는 전남산 유기농 가루녹차가 세계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전남 차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행관 전남도 농업기술원장은 “호주 수출은 전남 차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세계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